



# 평화의 도구

제 180 호

2008년 8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부회장 : 음광인 아오스딩 sfo 562-902-1585  
 서 기 : 김창순 데레사 sfo 714-447-0504  
 회 계 : 홍병숙 올리안나 sfo 714-522-0675  
 양 성 : 김영배 요한 sfo 714-447-8890  
 평의회원보조 : 김재현 안젤라 sfo 562-694-1919  
 평의회: 매월 첫째 일요일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8호실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 형제회 소식

### ▶입회및 서약식 거행

7월20일(일)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의 입회식과 콜베형제회및 Row-  
 land Heights의 성녀 글라라형제  
 회의 서약식이 성 토마스 성당에  
 서 있었습니다.

주례:김재섭 마리비안네 OFM신부  
 주관: 이세홍 바오로 OC형제회장  
 송기창 마리노 RH형제회장



### 축하합니다!

#### 서약자 (총 5 명)

윤명현 바오로, 안희자 데레사  
 박진의 로사리아(콜베 3명)  
 최태환 어거스틴,  
 최덕희베로니카 (RH 2명)

#### 입회자 (총 5 명)

정치영 요한 보스코, 배종두 미카  
 엘, 배연동 안나, 조성운 안젤라,  
 홍순철 안셀모 (OC 5 명)

### ▶가톨릭 워커 무숙자 봉사

9월 첫째 주일에 봉사합니다.  
 8시 30분 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문의 : 평의회원

주소:316 Cypress Ave, Santa Ana  
 714-558-7478

### ▶양성반 재편성 및 봉사자

지원반: 이병재 힐라리오

양성 I-A반: 김영배 요한  
 지난 7월20일 입회하신분들  
 2010년 6월 서약예정

양성 I-B반: 유근숙 올리아  
 2009년 6월 서약예정

양성 II 반: 이세홍 바오로  
 2008년 11월 서약예정

영속적 양성반: 월례회때 공지

###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박테리아

공해, 화학물질및 나쁜 박테리아  
 등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EM 에 관한  
 정보입니다. 유용한 미생물  
 EM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도 실제 사용하여  
 보시고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www.emcenter.or.kr](http://www.emcenter.or.kr)

수고하셨습니다 !!

8월 식사준비

이수경 안나 이윤석 안토니오  
 정계순 올리안나 남수정 요안나  
 이복내 마르타 홍병숙 유리안나  
 홍순철 안셀모

▶ 9월은 제 9구역

병환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에스돈 올리안나  
 박계옥 안나  
 이수경 안나  
 백병길 힐데갈드  
 이복내 마르타  
 김화성 바오로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8월 7일 이주옥 헬레나  
 8월 8일 임민웅 베드로  
 8월 8일 윤상우 아그리빠나  
 8월24일 김상철 스테파노



## FMC 서부지부 후원 회원님들께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 평화와 선

그동안 주님 은총안에서 가족분들 함께 모두들 건강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5월말 중국에서 돌아오는 그날부터 다시 떠나는 마지막 밤까지 단 한시간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바쁘게 뛰어 다녔습니다. 반년 넘게 미루어 놓았던, 제가 꼭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마운 얼굴들을 짧은 시간에 두루두루 다 보고 싶은 급한 마음에 몸과 마음이 함께 경중경중 뛰어 다녔지요.

저는 오늘, 23일에 LA로 가서 일주일간 피정지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서 예정된 혼배미사를 드린 후에 8월초쯤 두만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반갑게 달려와 저를 맞아주시고 환대하여 주셨던 고마운 형제, 자매님들, 묵묵하게 뒷전에서 말없는 기도과 도움을 보내 주셨던 많은 후원회원님들, 그 모든 분들을 이 가슴에 담고 중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해도 저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잊지 않고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2,363.40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물이 빠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다 두만강을 건너오고 있을 불쌍한 탈북형제의 생명을 서부지부 후원회원님들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안에 가족분들 함께 늘 건강하시며 평화롭고 기쁨 가득한 날이 되시길 미사중에 기억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감사드리며

\* FMC: Franciscan Missionary Charities

## 제8차 북남미 연수회를 다녀와서

유근숙 율리아 SFO

지난 7월31일(목) 부터 8월3일(일) 까지 3박4일동안 말리부 세라피정센터에서 제8차 북남미 연수회가 LA 성프란치스코 형제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위로는 알래스카에서부터 남미의 브라질까지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원 총141명과 김기수 프란치스코 OFM 신부님, 오상선 바오로 OFM 한국 순교성인 관구장님, 김재섭 마리비안네 OFM 신부님, 크리스 띠엘 OFM conv. 신부님( LA형제회 영적보조), 길봉옥 데레사 수녀님(성모의 고통 수녀회)등 수도자 5분이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가족으로서의 관계및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및 토론을 하였으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각 형제회별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우리 오렌지카운티형제회는 즉석에서 짜낸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덕분에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과 사부님안에서 즐거워 하는 모습들이 마치도 천진한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 보니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프란치스코로서의 삶을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크고 넓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꾸준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열심히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년 후에 있을 제9차 북남미 연수회 개최지는 브라질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님과 사부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 성 프란치스코 영성



### 자기 자신의 영적 기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 기쁨을 즐기다

기도와 성무일도를 바치는 시간 이외에는 언제나 지속할 수 있는 영적 기쁨을 가지는 것이 성 프란치스코의 더없는 소망이었다. 이것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찾고 싶어하던 덕성이었다. 그들이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기미를 보이면 그는 자주 꾸짖어 주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하느님의 종이 순결한 마음에서 솟는 영적 기쁨과, 간절한 기도로써 얻는 영적 기쁨을 얻어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면 마귀들은 그를 해칠 힘을 잃고 '하느님의 이 종은 고통과 기쁨, 어느 경우에도 희열을 느끼고 있으니 그에게 손을 댈 수도 해칠 수도 없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참된 기도와 다른 성무를 집행하는 데서 얻어지는 정성과 기쁨을 잃게 하여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다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느님의 종 한 사람을 손아귀에 넣고 다고 할 때 그 종은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기도와 봉헌 그리고 속죄의 힘으로 가능한 한 재빨리 그 마귀를 쳐 이기지 못한다면 그 마귀는 머리카락 하나를 공격용 통나무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이여, 영적 기쁨이란 순수한 마음과 끊임없는 참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여러분과 내 자신 가운데서 내가 간절히 찾고 싶은 이 내적 기쁨을 갖도록 이 두가지 덕성을 얻어 보존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을 계도하고(깨우쳐 일깨워 주고) 우리의 적을 꾸짖어 줍니다. 슬퍼하는 것은 마귀와 그 추종자이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 완덕의 거울 95 -

## 성 루도비코 9세 왕 (재속 프란치스코회 주보성인) (1214-1270) 축일: 8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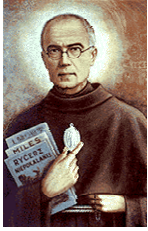
루도비코는 '빛나는 전투'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왕이 되는 대관식에서 루도비코는 하느님이 도유하신 백성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행동할 것을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통치 초기에는 어머니인 성녀 블랑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방스의 마가렛과 결혼하여 열한명의 자녀를 두었고 친히 그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는 신심이 깊었고 기도와 극기의 생활 가운데 정의로웠고 기사도를 존중했으며, 30세 때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였으나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짓고, 환자를 방문하고, 성프란치스코와 함께 나환자를 돌보는 등의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평화와 물질적인 진보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진보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프란치스코 수도가족의 좋은 후원자였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영주와 읍민들, 농부들 그리고 사제들, 기사들-를 그의 인격과 성덕의 힘으로 통일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는 평화로웠으나 모슬렘이 시리아로 진격하게 되자 평화는 깨졌고 그는 1267년, 42세에 제2십자군을 이끌고 그의 형을 구하기 위해 튀니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한달 만에 질병으로 많은 사람을 잃었고 병든 병사를 간호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1270년 튀니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7년 후에 시성되었습니다.



##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편

#### (II)

그리고는 한 사람씩 차례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무언가 잠깐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서투른 폴란드 말로 말했습니다.

"입을 벌려 혀를 내밀어라. 이빨을 보여 !"

14호 감방 죄수들은 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소장은 천천히 죄수들의 이빨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튼튼한 죄수를 뽑으려는 것인가?

마침내 소장은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

보좌관인 팔리치가 그 번호를 얻은 명부에 적었습니다. 오센침에서 포로는 사람이 아닌 번호에 지나지 않았습다. 번호를 불린 사람은 순간 새하얗게 질린 채 줄에서 나와 섰습니다. 물을 끼얹는 듯한 침묵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려 왔습니다.

프리치는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너, 너, 그리고 너 !"

이제 번호가 불린 사람이 10명이 되었습니다.

10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줄에서 나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되었구나 ! " 가엾은 포로는 보좌관에게 끌려가 제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번호가 불려지지 않은 포로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리치의 보좌관인 팔리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발을 벗어 !"

사형수들은 맨발로 행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을 벗어 던지는 소리 속에 한 사형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바로 아내와 아이들을 못 보게 되었다고 울부짖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다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 다른 포로들도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왼쪽에는 그 무시무시한 13호 감방이 보였습니다. 검벽의 사형 집행실입니다.

사형대와 굵게 죽이는 방이 있는 13호 감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의 포로가 놀라고 있는 동료들을 해치고는 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가 약간 옆으로 굽은 그 사람은 당황해 하는 수용소장 프리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긴장했던 대열이 동요하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이다 !"

프리치 소장은 순간 허리춤에서 권총을 쥐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라 ! 무슨 일이야? 이 폴란드의 돼지 새끼야 !"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은 소장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 태도는 너무도 당당하고 침착했습니다. 신부님은 잔잔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바로 옆의 사람에게나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 사형수 중의 한 사람 대신 내가 죽겠소."

프리치 소장은 당황하여 말을 잇고 멍하니 신부님을 쳐다 보았습니다. 꿈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소리를 그는 들은 것입니다. 소장은 신부님의 짓누르는 듯한 시선을 받고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프리치 소장은 얼빠진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

"나는 늙었고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살아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죽겠다는 거냐?"

"저 사람, 부인과 아이들을 가진 사람 대신입니다."

신부님은 손가락으로 조금 전에 울부짖던 프란치스코 죠프니체크 중사를 가리켰습니다. 프리치 소장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호기심에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 "나는 신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흡혈귀라고 불리는 잔인한 수용소장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였다. 신부님의 행동은 포악한 수용소장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대답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소장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얼굴과 수염은 아주 젊어 보였고 화사해 보였습니다. 신부님은 프리치 소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이 장엄한 평화 속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신부님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신부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었을 때, 그건 하느님을 도와 준 것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을 때, 그건 하느님을 격려해 준 것이다.

고통에 파묻혀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였을 때, 그건, 하느님을 위로해 준 것이다.

네 곁을 스쳐 가는 모든 이에게 조그마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건 하느님을 소중히 대해 준 것이다.

하느님 ! 이제 당신 곁으로 가옵니다.

인자하신 성모님 !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빌어 주소서."

[9월에 계속]